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8강, 번영복음 1부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세션, 잠언에 나오는 번영의 복음, 1부입니다.

성경 잠언에 관한 여덟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8강과 9강에서 우리는 잠언의 번영 가르침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그것을 특별히 기독교 잠언에 돌아다니는 일부 가르침과 사상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번영 복음 가르침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교회. 이 주제에 대한 8번째와 9번째 강의에서 이 주제가 6번째와 7번째 강의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의들이 모두 하나이고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했지만 꽤 길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속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강의는 훨씬 짧아지고 다루기 쉬운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번영에 관한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지혜, 특히 잠언서는 부, 빈곤, 자원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 등 사회 현실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진지한 참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경제 규칙, 도덕적 및 윤리적 원칙, 종교적 감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세심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잠언에는 삶의 행복 추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또한 특정 행동, 활동, 선택의 끔찍한 결과, 즉 경제적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부를 적절하게 만들고, 유지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이고 영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성경적 지혜는 삶의 다양한 사물, 태도, 습관,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치 체계 구축에 경제적 계산을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물질적 번영은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성공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척도는 아닙니다. 빈곤이 항상 개인의 삶의 선택에 따른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는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글로벌 환경에서 잘 살고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현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내가 8강과 9강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먼저 잠언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거의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번영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총체적입니다. 셋째, 전도서와 욥기에 나오는 번영에 관한 자료는 잠언에 대한 교정이나 비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주요 주제를 감상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언이 단순한 유형의 번영 복음 신학이나 접근 방식을 장려하거나 적어도 자신도 모르게 자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대중적인 비난을 배경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번영복음에 대한 간략하고 다소 단순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정의는 Collins Dictionary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인용하는 번영 복음은 현대 버전이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따르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는 부와 건강과 능력이 포함된다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첫 번째는 복음의 일부 왜곡에 따라 사전 항목이 가치 진술을 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전 항목의 저자가 느끼는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복음과 관련된 논쟁과 문제를 강조합니다., 확실히 최근 수십 년 동안 번영 복음의 과잉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번영복음 교육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부(富)뿐만 아니라 건강, 즉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사회적 권력, 그것이 사회적 명성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풍부하고 매력적이어서 두 번의 짧은 강의에서 번영 복음 가르침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잠언, 전도서, 욥기에 나오는 형통에 관한 책을 출판하면서 이 일을 글로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의에서 부와 관련된 교육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의에서 건강과 힘을 제외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책 한 권 길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책 한 권 분량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학계의 의견을 간략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넣고 더 큰 학문적, 학문적 관점에 내 의견을 담기 위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긴 글을 쓰면서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말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번영형 가르침과 관련된 토론, 학문적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클라우스 코흐(Klaus Koch)가 1955년에 원래 독일어로 작성된 기사에서 처음 제기한 소위 행위-결과 연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잠언의 많은 말씀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Koch는 이것을 Tunergehenzusammenhang이라고 불렀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행위-결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문구는 1983년에 행위-결과 구문으로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Zusammenhang을 연결이 아닌 구문으로 번역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의 고정된 성격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많은 속담과 그 거의 불가피한 결과에서 분명히 표현된 것처럼 보편적 규칙 사이의 자동 연결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클라우스 코흐(Klaus Koch)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규칙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신의 적극적인 개입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규칙을 따르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자신의 행동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Klaus Koch 기사의 영어 번역이 2008년에 출판된 책에서 Peter Hatton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의미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인간 행동의 결과 사이의 기계적 연관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영어권 세계의 학자, 학계, 목사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해는 북미, 유럽의 일부 지역,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 있던 전 세계에 걸쳐 매우 영향력 있고 크고 큰 교회에서 대중적인 변영 유형의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잠언이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제공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한 후에 나중에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부와 변영에 관한 그의 책에서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에 따르면 잠언은 물질적 소유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 중 가장 일반화 가능하고 시대를 초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그들의 속담적 성격은 그것이 종종 사실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富)에 관한 책에서 잠언의 중요한 장을 차지하는 신약 학자 블롬버그(Blomberg)는 실제로 클라우스 코흐(Klaus Koch)의 견해와 변영 복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잠언의 다양한 구절을 해석하는 데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학적 접근 방식을 가진 잠언 주석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Trempe Longman은 이 책의 10-31장에 있는 개별 잠언을 문맥이 아닌 개별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내가 속담 묶음, 또는 속담 묶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책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여러 잠언을 함께 읽는 것이 어떻게 그 잠언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내 생각에는 그것들을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속담의 클러스터가 함께 모이면 개별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야, 특히 10-29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살펴볼 나중 강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변영복음 현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서 잠언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고려할 때, 잠언에 부(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Derek Kidner, Catherine Dell, Trempe Longman의 주석 부록에 있는 것입니다. Blomberg의 책은 이미 잠언의 장에서 부와 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Timothy Sandoval입니다. 잠언에도 재물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치료법의 특징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존재를 진술하고, 현실을 명백히 특징 짓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만을 말해주는 상당수의 속담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잠언에 나오는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진술이 실제로 문맥상 그러한 잠언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식으로, 때로는 히브리어로 표현하여,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여기에 묘사된 이 현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하도록 도전하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언에 대한 많은 사람들, 많은 학문적 해석가들이 말하는 것, 즉 잠언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명백히 진술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실제로 이러한 진술에 가치 판단을 추가하는 미묘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기 있는 치료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있고, 이 주제에 대한 인기 있는 책들이 너무 많고, 많은 TV 설교 등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물론 엄청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탐구하는 데 수년의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설문 조사는 번영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TV, 텔레비전 설교, 특정 책이나 주제에 대한 치료법의 작은 샘플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것은 이것을 네 가지 제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매우 간단한 설문조사이며 물론 훨씬 더 많은 일이 가능하고 어쩌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 강의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관리하기 쉽게 유지하세요. 상대적으로 짧게 유지하겠습니다. 우선, 설교자와 교사는 성경의 다양한 출처에서 번영 복음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합니다.

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고 많은 설교 자료인데, 오히려 놀랍게도 신약성경에서 나왔고, 불균형적으로 복음서에서 나왔으며,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인용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잠언서에 나오는 진술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변영 복음 유형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석될 수 있거나 확실히 해석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둘째, 이러한 설교와 치료법 중 많은 부분이 성경적 참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영복음의 가르침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적어도 설교자들이 하는 명백한 진술에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고 제가 설교와 대중 서적에서 본 거의 모든 참고 자료는 학계에서 종종 증거 문자 메시지로 설명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증거 문자 메시지는 주어진 참조가 있고 여기서 다소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혹한 요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참조가 있다면 단순히 진술, 종종 한 절의 절반 또는 한 구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순서대로 최대 2개의 구절, 꽤 규칙적으로 4, 5, 6, 7개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따르면, 설교자와 교사가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자 하는 내용은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되며, 이제 더 이상의 해석이나 정당화 없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맥에서 벗어난 진술과 거의 모든 진술이 문맥에서 벗어난 진술은 즉각적이거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거의 모든 것을 뒷받침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직접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제공하거나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어떤 종류의 진술이라도 맥락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한 부분만 문맥에서 벗어나 인용되는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암시했던 세 번째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구절은 거의 항상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됩니다.

근본적인 가정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이며, 이는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가정은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과 모든 것이 너무나 솔직하게 사실이어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이나 해석, 뉘앙스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진리 진술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자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심지어 20세기 초에도 노예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북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다른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당시와 현재 세상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문맥을 벗어나 성경적 진술을 인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요점은 이미 이것에 대해 약간 암시했으며, 성경의 의미 전반에 걸쳐 개별 구절이나 문구 또는 진술은 자명하고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의 동일한 문구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몇 가지 예를 보여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강의 소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자체에서 번영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부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널리 알려진 지혜나 정의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서의 부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주님은 그러한 보상의 근원,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예가 13장 11절입니다. 급히 모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자는 늘어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나와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나중에 1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앞 절과 결합하여 희망에 관한 11절, 12절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인식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약속을 제시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나와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리고 즉시 우리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소망을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빨리, 즉시, 즉시 얻은 재물은 11절과 짝을 이루면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는 재물을 늘릴 것이다., 이 부가 얼마나 빨리 획득되는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빨리 얻은 부는 좋지 않고 줄어들고, 반면에 조금씩, 즉 오랜 노력으로, 근면으로, 기술로, 노력으로, 인내로, 끈기로 얻은 부는 줄어든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가치는 욕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욕구는 자신의 욕구와 희망이 즉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즉각적인 만족의 지연, 지연된 만족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자, 여기 이미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진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잠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하나씩 인용하고 그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형통은 의인에게 보상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거나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와 방법을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간단해 보이는 잠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는 수동태로 표현되므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어떻게 쌓아 두는지, 그 쌓는 일을 누가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 자신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 두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쌓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사실 불의하게 재산을 축적하면서 의인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은 바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세계에서도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였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접적인 언어적 진술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의인을 위해 죄인의 재물을 쌓아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죄인을 따르고 형통은 의인에게 상을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21절의 이 문장에서는 형통 자체가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거의 자동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클라우스 코흐(Klaus Koch)의 초기 주장이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변영 속에서 그 자체의 보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죄인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변영 복음 교사와 설교자들이 그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13장 23절을 보았는데, 한 구절만 뒤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밭은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불의로 인해 쓸려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411년,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느니라.

이 뒷부분의 말씀을 같은 장 14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악인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왕한다고 합니다. 누가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게 하느냐? 악인의 집을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1절에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 자신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절마다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매우 유사한 구절입니다.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으나 악인의 소득은 재앙을 받느니라. 이번에도 이것은 단순한 번영의 진술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지키시느니라. 따라서 여기에는 불미스러운 캐릭터의 집이 철거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물론, 받을 자격이 없고, 얻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 상속을 통해 은혜롭게 받은 부도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장 14절은 현명한 배우자를 갖는 것, 이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고대문학인 아내를 갖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마찬가지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남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가족 관계가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은 부의 획득이나 유지가 신앙과 종교적인 목적에 대한 관대한 기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의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에 달려 있다는 인상입니다.

나는 이제 잠언에 있는 몇 가지 다른 근본적인 가정을 강조하고 싶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한두 구절만으로 그 가정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각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제가 말하려는 것을 풍성하게 하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절 자체가 충분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요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혜와 동일시되는 현명한 아버지의 가르침의 계명은 장수와 아마도 건강과 부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장 1절에 보면, 애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을 네 마음으로 지키라.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줄 긴 수명과 풍부한 복지에 대한 동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접 증명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간결함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진술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의인화된 지혜가 경제적 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은 대신 나의 훈계를, 정금 대신 지식을 취하라.

지혜는 보석보다 나으므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적, 영적 미덕은 물질적 부와 관련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Lady Wisdom 자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화된 지혜는 의로움을 통해 사회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성과 풍부한 부를 가져다줍니다. 또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부와 귀가 내게 있으니 부와 형통이 항상 있느니라. 내 열매는 금, 심지어 정금보다 낫고 내 수확물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공의의 길을 따라 의의 길로 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를 주고 그 곳간에 채우느니라. 지혜는 성공과 풍부한 부를 가져다주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롭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책 전반에 걸쳐 수많은 잠언에서 하나님은 직업적 정직성을 기뻐하시거나 선호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학적 범주의 말이지만, 신의 은총과 축복 사이의 영적 연결은 개인의 신앙, 영성, 감정, 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교환. 이는 직장에서 정직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명언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진술들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든 신적 실체에 대한 분리된 가치 진술이나 판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천국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히려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종류의 경제적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인간의 정직함을 적극적으로 기뻐하십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되 정확한 저울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물론 이것은 고대 규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 걸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가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농산물은 저울로 무게를 달고, 농산물의 무게는 저울에 맞춰 무게를 달고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무게 또는 특정 무게를 지정하는 돌 또는 금속 조각.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저울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지 가치, 법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상인이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거나 더 넓게 말하면 다른 산업이나 상업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정직하고 구매자에게 약속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거래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16장 11절에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정직한 저울과 저울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방 안에 있는 모든 저울추는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정직한 사업가라면 누구나 알든 모르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활력과 권한을 부여받고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장의 힘과 건전한 시장 행동 뒤에 숨은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종종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을 논의할 때 사람들이 시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시장은 인격화된 지혜와 마찬가지로 인격화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일을 하고 시장은 저러한 일을 하며 시장은 바로잡고 시장은 이런 종류의 모든 것과 상호작용합니다. 갑자기 시장은 거의 초인적인 준수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언은 시장을 의인화하지 않고, 사회를 위한 올바른 경제적 행위와 경제적 복지의 기반이 되는 방식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해석이나 것처럼 명백히 단순한 진술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장 10절.

다양한 저울추와 다양한 척도는 모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다양한 도량형과 도량형, 즉 도량형은 무게에 관한 것이고, 판매되고 구매되는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는 반면, 도량형은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상품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무게와 다양한 측정값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매자를 속여 그들이 얻는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잃도록 하는 상인이 상인이나 판매자,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그들은 이것이 1킬로그램이나 2파운드 등이라고 말하는 무게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측정은 실제로 킬로그램당 1,000그램이 아니라 1.5파운드 또는 900그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동일한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트릭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 쌀 1킬로그램을 사고 싶다'고 말하면 사실 그들은 1.5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kg의 가격으로 그들은 1.5kg의 가격으로 쌀을 얻습니다.

그런 생각이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주님 께 가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분리된 가치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업 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20장 23절, 서로 다른 저울추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요 거짓 저울은 좋지 아니하니라.

2017년, 속여서 얻은 빵은 달콤하지만, 그 후에는 입에 자갈이 가득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속임수로 얻은 빵은 달콤하다. 따라서 여기서 빵은 물론 모든 종류의 이익,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신체적 감각, 즐거운 신체적 감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속임수와 속임수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맛이 좋습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내가 그녀나 그 사람을 이겼거나 뭐든지 말이죠. 달콤한 맛이 나요. 그러나 나중에는 입에 들어가면 자갈이 된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장기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잠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의 마지막 예는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의 마지막 예는 21장 6절입니다. 거짓말로 보물을 모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요 사망의 올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뇌물을 받았거나, 거짓 증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을 받았거나, 판매 중인 상품의 가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마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보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이렇게 얻은 보물은 한 줄기 바람과 같고, 시원한 이른 아침의 숨결과 같아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멋져 보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죽음의 올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암묵적으로 신성한 심판을 통해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의 이면입니다.

변영형 교육 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영복음을 가르치는 실무자들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들이 이 점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마도 꽤 자주, 의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의로운 길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의롭고

품위 있고 정직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현실적입니다. 조금씩 저축하고, 스스로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발전할 때, 우리가 방금 설명한 방식과 다른 많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가능성과 취약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개인 범죄와 더 넓은 사회의 불의한 체계적 규칙, 세계의 체계적 불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지만 폭력은 생명을 빼앗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리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 앞의 두 구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시들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물의 이미지, 즉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지만 폭력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쁜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자신의 부를 신뢰하는 품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빼앗깁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전부라면, 그것은 그들의 손에서 시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인 의로움, 도덕적, 경제적 품위, 정직, 지역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속담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 즉 30절에 나오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생명나무인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아마도.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면 아마도 그들의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가 되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유익과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신성한 미덕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분 안에 의로움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불의나 특정 착취로 인해 그들이 일한 결과를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장 23절. 가난한 자의 밭은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불의로 인해 쓸려갑니다. 우리는 그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의가 무엇인지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것이 특정한 착취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회적 불의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고, 폭력적인 절도일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것일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성명서의 불확실한 성격은 관찮은 사람들의 성취, 이생에서의 경제적 성취를 고갈되기 쉬운 모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 구절과 다른 여러 구절은 조언의 일부로 표현되고 명령형의 계명으로 표현됩니다. 22장 2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세운 옛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 특히 선지서와 잠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고아, 과부, 외국인의 중요한 삼부조 중 하나인 고아를 언급하는 다음 구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입니다. 23장 10절과 11절. 옛적의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라.

그는 당신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변호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며, 그 구속자는 왜 변호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정에서 서서 정의로운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회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부와 고아에게는 아버지와 남편이 없으며 외국인은 법정에서 이스라엘 원주민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종종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여기의 구속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 즉 경제적 착취로부터 자신을 돕거나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염려하십니다. 예를 들어 15, 25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지키시느니라 24장 15절.
의인의 집에 대하여 불법자처럼 매복하지 말라.

의인이 사는 곳을 폭행하지 마십시오. 16절. 그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난으로 멸망한다. 어떨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일종의 진술일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동기는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외국인이 학대를 당하면 일곱 번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이생에서 항상 재난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담 모음집의 종교적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일, 특히 사회에서 너무 취약한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등식의 양쪽에 장기적인 결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잠언의 번영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이 포함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